

욥기

모임 6: 욥기의 목적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6, 책의 목적입니다.

소개 [00:22-1:07]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이 권위와 영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설정, 장르, 날짜, 저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 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수사적 전략에 의해 달성됩니다. 목적은 구조를 통해 달성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욥이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욥 등에 관한 것보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약간의 특이성을 부여합니다.

목적[1:07-2:16]

이 책은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잘 생각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합당하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책의 목적이 하나님의 정책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는 신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고통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특히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나는 그것이 우리가 알아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는 책의 진정한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도전자의 비난: 의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좋지 않음 [2:16-5:49]

이제 이 책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비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늘에 대적이 있습니다. 적대자, 도전자, 때로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강의이지만 지금은 그를 "도전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도전자가 있고 도전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욥에게 주의를 이끄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마음에 두었느냐 그와 같은 자가 없도다." 다시 말하지만, 욥에 대한 묘사는 지극히 공정하고 의로우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자의 질문이 “욥이 거저 하나님을 섬기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것은 욥의 동기에 대한 질문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진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 질문에 내재되어 있고, 그 질문의 진정한 초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정책이 무엇인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자가 정말로 묻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좋은 정책입니까? 충분히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생각해보십시오. 만일 의인이 그 의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각종 이익과 형통과 성공과 건강과 각종 이익을 얻는다면 너희가 그들을 용병으로 길러낸 것이 아니냐? 당신은 정말 그들에게 의로움에 대한 숨은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많은 시간을 쏟다 보면 결국 의를 생각하기보다 은혜를 사모하도록 훈련시키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러한 다른 종류의 생각은 실제로 참된 의를 전복시킵니다. 그 사람이 혜택이 마음에 든다고 결정할수록 참된 의에 대해 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신이시여. 의인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이 좋은 정책입니까?

그것이 참으로 당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참된 의에 최선의 이익이 됩니까? 그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 사람의 동기를 타락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도전자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게 되든 이것이 제기해야 할 논리적 요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는 창세기 22장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으로 돌아가서 같은 종류의 질문이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간에 다시 올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정책에 대한 비난의 한 갈래는 하나님의 본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측면은: 의로운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이 정말 좋은 정책입니까?

욥의 비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5:49-6:47]

이제 욥에게 재난이 닥치고 재난이 그를 덮었을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의로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생각입니까? 내 말은, 우리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 편이고 당신의 팀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은 그다지 좋은 정책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도전자는 "의인이 번성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욥은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남았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합니까? 적절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Book's Focus: **일이 잘못될 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47-7:58]

이제 우리는 책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전자는 옳을 그릇된 동기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전개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잘되는 것 같지만 당신은 그를 너무 잘 살게 하여 그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옳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혜택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전략이며 일단 생각하면 정말 분명합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의에 관한 것입니다. 옳의 의의 성질이 무엇이며 의의 패기가 무엇입니까?

결론: 나는 신, 너는 아니야, 파워 카드 [아니오] [7:58-8:40]

이제 책의 끝 부분에 도달하면 책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나중에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카드를 탁자 위에 놓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책의 끝 부분에 도달할 때쯤이면 "당신은 신이 아니라 나는 신이다"라는 문구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일에 신경쓰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비교에서 가치가 없거나, 그냥 입을 다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 알다시피, 우리는 어떻게든 신이 파워 카드를 뽑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 알다시피, 나는 신이고 당신은 아닙니다.

결론: 나는 신이다 날 믿어 카드를 믿어 [예]]8:40-9:24]

그리고 나는 그것이 책이 도착하는 곳을 실제로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이라는 느낌이 있고,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는 지극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파워 카드가 아닙니다. 공감카드입니다. 신용 카드입니다. " 나는 지극히 현명하고 강력한 신이다. 나를 믿어라."

목적: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9:24-11:00]

그러므로 이 책의 목적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절박한 시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의 정책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못될 때 우리는 비난할 누군가를 찾고 하나님은 비난하기 가장 쉬운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편안하게 신뢰하기 위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고통을 가져온 사람이 그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욥에게 답을 주실 때, 마지막 장에서 욥에게 상황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큰 목적의 틀에서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책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는 법,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합당하게 생각하는 법.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6, 책의 목적입니다. [11:00]